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Parental Caring Aware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Relationships on Happiness of School-age Children

김수희*, 이숙**

논산시보건소/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Su hee Kim(yani1505@naver.com)*, Sook Lee(moonlight@dankook.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보호자로부터 연구동의서를 받은 학령기 아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하였고 최종 대상은 180명 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은 학교생활과 부모관심도 부모돌봄인식은 성별, 동거가족, 학교생활, 친한 친구, 부모의 관심도 정서지능은 성별, 동거가족, 학교생활, 성적, 또래관계는 성별, 학교생활, 친한 친구 세 명이상일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행복은 부모돌봄행위, 또래관계,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생활, 부모관심도, 부모돌봄인식과 또래관계 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7%이었다.

따라서 학령기아동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학교생활, 부모관심도, 부모돌봄행위와 또래관계를 고려해야함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학령기 아동 | 부모돌봄인식 | 행복 | 정서지능 | 또래관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effect of parental care awareness, emotional intelligence, peer relations on the happiness of school age childre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a survey of school-aged children who received consent from their guardians and the final target was 180. For data analysis, th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via the SPSS / WIN Ver 18.0 program. As the resul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chool life and parental interes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Parental caring aware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cohabitation family, school life, close friend, and interest of parent. Emotional intellig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cohabiting family, school life, school grad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peer relations in the cases of three or more close friends. Happiness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parental care awareness,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school aged children were school life, parental interest, parental care awareness, and the peer relationship. The R-square of these variables was 16.7%.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school life, parental interest, parental care and peer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a strategy to improve the happiness of school aged children.

■ keyword : | School-age children | Parental Caring Awareness | Happiness | Emotional Intelligence | Peer Relationship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를 추구한다. 행복감은 성별이나 지위,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1]. 특히 아동기의 행복감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및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며 인생진반에 걸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인기의 행복감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2]. 뿐만 아니라 아동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3].

하지만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은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입시준비와 함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주관적 행복과 생활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2016년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아동이 느끼는 행복의 요건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인식, 학업수행능력,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애착, 또래관계 순으로 나타났다[6][7].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가 친구의 지지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8]. 즉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애착이 돈독하며 사랑의 행위로 자신이 돌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9]. 그 다음 순으로 친구들과의 소속감으로 친구들로부터 안정감을 느낄 때 즉 또래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쳤다[6].

특히 학령기 아동은 발달 속도가 안정적이지만 또래관계를 통하여 지적, 사회적, 성격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이며[10].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관계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시기이다[11]. 또한 정서

적인 풍부함도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태도, 믿음이 아동의 정서적인 표현에 반응하고 정서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2].

부모돌봄 인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 대처를 받는 것,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대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동 스스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3].

즉 돌봄은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적 애착을 기반으로 아동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온정과 태도로 자녀의 문제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처럼 돌봄은 관계 형성에 모델이 되어 아동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준다. 이런 현상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좋게 해 준다[14]. 하지만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소외되고 방치되며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어 우울 및 조절장애, 불안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리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부모의 양육이 아닌 부모의 차가운 돌봄과 양육은 우울 증상도 증가 시킨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기억하는 부모와의 따뜻한 관계는 내가 돌봄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연인관계에서 더 큰 지지를 상대방에게 주며 버려질 것에 대해 덜 염려하게 해 주는 등 인간관계에 기본이 된다. 따라서 아동기의 부모 돌봄 인식은 성인기의 애착과 이후에 결혼 만족도 그리고 여러 관계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5].

이처럼 아동의 성장과정에 있어 부모는 최초의 인간 관계이며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환경은 아동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8].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것은 아동에게 부모 돌봄으로 인식되어 학교생활을 하며 교사나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돌봄을 잘 받았을 지라도 학교나 사회 등 또래관계에 있어서 아동이 합류해서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했을 경우에 아동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

한다. 빈약한 또래관계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함으로 또래의 관계적 상황도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17].

반대로 또래간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여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1]. (Moon, 2009)[18]은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외로움을 일으키고 이것은 불안정한 양육태도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래관계 좋게 나타났고 초기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중기 아동기 때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데 친구관계 있어 친밀감과 충성심은 우정의 측면보다 더 정교한 사회적 기술을 필요로 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부모의 역할과 기능에서 유래 된다고 하였다[19].

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동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회현상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 즉 우울, 슬픔,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곧 아동이 일생에 느끼는 마음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남는다[20].

심리적 부적응은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 Lee & Kim(2013)의 연구에서 우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성격발달에 깊게 작용한다고 하였다[1].

한편, 정서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알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생활하는 능력을 말한다[21]. 정서지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22] 아동의 정서지능은 일반지능보다 사회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련이 있으며 또래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은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M. S. Yoo, K. S. Chung, S. H. Park, J. R. Cha and K. P. Hong(2013)의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4].

(Alegre,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즉, 같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거

나 활동이 관련이 있으면 아동의 정서적 지능이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그 능력을 훈련 받을 수 있는 반면, 성격에 따라 인간 상호 작용을 통해 미묘한 양육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중 부모-자녀 상호 작용과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것, 부모돌봄이 중요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12]. (Carvalho & Guerrero & Chambel,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의과대학생, 물리치료학과학생, 간호대학생 등 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의 경우 정서지능은 소진 감소와 인생의 만족도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돌봄행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eak, 2013)[26], 돌봄행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희망,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Choi & Lee, 2010)[27]. 돌봄인식을 적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반응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Kim and Lee, 2015)[28].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Chio, 2015)의 연구에서 부모돌봄인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부모돌봄인식은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 및 부정적 정서를 변화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29].

부모돌봄인식은 학령기 아동의 시선에서 지각하는 부모가 아동에게 해주는 돌봄행위를 말하며[13], 따라서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생활에서 보건의교사를 통한 전문적인 부모돌봄인식으로 또래관계와 심리적 부적응을 경감시켜서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부모돌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돌봄인식 지각, 행복, 정서지능, 또래관계 특성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참여자 선정은 B군과 D시의 관내 초등학교, 사회바우처 서비스 센터에 공문을 보내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였다. 대상의 표본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95, 예측요인 5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76명이었으나 편의 추출방법의 적용과 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 인원은 180명이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B군 B초등학교 5,6학년 아동과, D시의 사회 바우처 서비스센터, D시에 다니는 B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이었다.

참여자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 진행 전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IRB No: DKU IRB 2016-10-018-005). 연구 진행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익명성이 보장되며, 설문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진행 과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법적대리인의 동의서와 아동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면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부모돌봄인식

부모돌봄인식은 아동이 부모에게 받은 행동을 지각하는 것으로 Yun(2005)의 대인돌봄인식 척도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알아봐줌, 동참함, 공유함, 적극적 경청, 동행함, 칭찬함, 안위함, 희망 불러넣어줌, 용서함, 수용함으로 총 10개의 문항이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type(1점=아주 적음, 5점=아주 많음)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돌봄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13][30].

3.2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Moon(1996)의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 정서인식(8문항), 정서표현(7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항), 정서활용(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문항으로 1-37번 문항들은 3점 Likert 척도로, 38-47번 문항들은 두 가지 예시의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나타낸다. 각 하위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인식이 .69, 정서표현이 .66, 감정이입이 .67, 정서조절이 .88, 정서활용이 .70, 정서지능의 전체 점수는 .81으로 나타났다[21].

3.3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Gullone과 Robinson의 IPPA-R(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척도를 Hwang(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신뢰(trust)요인(9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요인(9문항), 그리고 화 및 소외감(anger and alienation)요인(7문항)으로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

석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는 .92이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하위 영역별로 Cronbach's α 는 신뢰가 .87, 의사소통이 .89, 화·소외감이 .61, 으로 전체는 .90로 나타났다[31-33].

3.4 단축형 우울-행복 척도

단축형 우울-행복 척도(The Short Depression-Happiness Scale: SDHD)는 Joseph, Lineley, Harwood, Lewis, & McCollam(2004)의해 우울과 행복의 빠른 평가를 위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아동들 자신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며 총6개 문항, 4점(0: 전혀 아니다. 3점: 자주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의 신뢰도는 Shin & Chae(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다[34].

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B군, D시의 관내 초등학교, 사회서비스 바우처 센터에 공문을 보내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장에게 찾아가 연구 취지를 설명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B군 B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D시의 사회 바우처 서비스센터, D시에 다니는 B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허락한 초등학교 5, 6학년인 학령기 아동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됨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로 하였다. 익명처리를 위해 서류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배부한 뒤 설문지 작성 후 부모 동의서와 함께 밀봉하여 우편으로 자료를 받았다. 1인당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5분 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Window용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6학년 125명(69.4%), 5학년 55명(30.6%)으로 6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88명(48.9%), 여자92명(53.7%) 형제관계는 형/오빠가 64명(35.6%), 누나/언니 50명(27.8%), 여동생이 31명(17.2%), 남동생이 26명(14.4%)순 이었다. 가족형태로는 한 부모가정 14명(7.8%), 양부모 가정이 155명(86.1%)로 가장 많았으며, 조손가정 8명(4.4%), 다문화 가정 3명(1.7%)순 이었다. 동거가족은 부모님과 동거는 155명(86.1%), 한 부모는 18명(10.0%),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동거는 7명(3.9%)으로 부모님과 동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이 즐겁다 121명(67.2%), 그저 그렇다 58명(32.2%) 힘들다 1명(0.6%)로 대체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잘하는 편이다 50명(27.8%), 보통이다 120명(66.7%), 못하는 편이다가 10명(5.6%)으로 대체로 성적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의 수는 없다가 0명(0%), 한두 명 20명(11.1%), 세 명 이상 160명(88.9%)으로 나타나며 부모님의 관심도가 상인 경우가 127명(70.6%), 중이 47명(26.1%), 하가 6명(3.3%)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은 부모님의 관심도를 대체적으로 높게 보고 있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N = 180)

특성	구분	n	%
학년	5학년	55	30.6
	6학년	125	69.4
성별	남	88	48.9
	여	92	51.1
형제관계	형/오빠	64	35.6
	누나/언니	50	27.8
	여동생	31	17.2
	남동생	26	14.4
	외동	9	5.0
가족형태	한 부모가정	14	7.8
	양부모가정	155	86.1
	조손가정	8	4.4
	다문화 가정	3	1.7
동거가족	한 부모	18	10.0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7	3.9
	부모	155	86.1
학교생활	즐겁다	121	67.2
	그저 그렇다	58	32.2
	힘들다	1	0.6
성적	잘하는 편이다	50	27.8
	보통이다	120	66.7
	못하는 편이다	10	5.6
친한친구	없다	0	0.0
	한두 명	20	11.1
	세 명 이상	160	88.9
부모관심도	상	127	70.6
	중	47	26.1
	하	6	3.3

2.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수준 및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0으로 (Chio, 2015)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13]. 부모돌봄인식 중 10가지 각 항목의 점수를 살펴보면 위로함이 3.96점으

로 가장 높았고 동참함이 3.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지능의 전체 평균은 2.15으로 수치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다. 전체 또래관계 평균도 3.76이며, 증가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행복의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평균3.48로 나타났다.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돌봄인식 ($r=.297, p<.001$), 정서지능($r=.230, p<.01, p<.001$), 또래 관계($r=.274, p<.001$)은 행복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돌봄이 적절하고 충분하면 아동의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대인관계 및 또래 관계가 좋아져 아동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은 성별($t=2.856, p<.01$), 동거가족($F=4.477, p<.05$), 학교생활($t=2.198, p<.05$), 친한 친구($t=2.763, p<.01$), 부모의 관심도($F=11.114,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지능의 경우 성별($t=4.097, p<.001$), 동거가족($F=3.812, p<.05$), 학교생활($t=2.326, p<.05$), 성적($F=3.570, p<.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관계는 성별($t=2.892, p<.01$), 학교생활($t=3.586, p<.001$), 친한 친구 세 명이상일 경우 ($t=2.668, p<.01$)에서 한, 두 명일 때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또래관계는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표 2.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수준 및 상관관계 (N = 180)

변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
	r (p)	r (p)	r (p)	r (p)
부모돌봄인식	1	.401***	.455***	.297***
정서지능		1	.546***	.274***
또래관계			1	.230**
행복				1
Mean±SD	3.80±0.75	2.15±0.20	3.76±0.56	3.48±0.66

* p<.05, ** p<.01, *** p<.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결과 (N = 180)

특성	구분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학년	5학년	3.89±.76	1.15(.253)	2.13±.19	1.41(0.161)	3.84±.65	1.22(0.225)	3.44±.75	.52(.602)
	6학년	3.75±.74		2.14±.20		3.73±.51		3.60±.62	
성별	남	3.64±.69	2.86**(.005)	2.00±.22	4.10***(.000)	3.64±.55	2.89**(.004)	3.44±.70	.83(.406)
	여	3.95±.77		2.21±.16		3.88±.54		3.52±.63	
형제관계	형/오빠	3.72±.77	.42(.791)	2.13±.18	0.20(0.941)	3.71±.55	0.48(0.754)	3.42±.70	.78(.539)
	누나/언니	3.88±.73		2.16±.19		3.84±.58		3.57±.64	
	여동생	3.76±.63		2.15±.20		3.72±.56		3.44±.69	
	남동생	3.84±.91		2.16±.25		3.80±.61		3.58±.60	
	외동	3.89±.62		2.14±.21		3.72±.36		3.26±.66	
가족형태	한 부모가정	3.77±.53	1.76(.157)	2.09±.22	1.22(0.306)	3.72±.59	0.11(0.957)	3.60±.46	1.35(.261)
	양부모가정	3.82±.75		2.16±.20		3.76±.56		3.49±.66	
	조손가정	3.25±.87		2.08±.15		3.86±.47		3.04±1.00	
	다문화가정	4.17±.57		2.28±.32		3.72±1.00		3.56±.39	
동거가족	한 부모a	3.81±.69	4.48*(.013) a,c>b	2.08±.20	3.81*(0.024) c>a>b	3.61±.58	0.79(0.457)	3.52±.49	2.36(.097)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b	2.99±.80		1.99±.16		3.70±.21		2.95±1.01	
	부모님c	3.83±.73		2.16±.20		3.78±.57		3.50±.66	
학교생활	즐겁다	3.87±.71	2.20*(.029)	2.17±.18	2.33*(0.021)	3.86±.53	3.59***(.000)	3.61±.56	3.54***(.001)
	그저 그렇다	3.62±.77		2.10±.22		3.55±.57		3.25±.78	
성적	잘하는 편이다a	3.84±.73	.640(.526)	2.20±.21	3.57*(0.030) a,b>c	3.89±.53	2.04(0.133)	3.53±.54	.66(.516)
	보통이다b	3.80±.76		2.14±.19		3.72±.57		3.45±.72	
	못하는 편이다c	3.55±.63		2.03±.21		3.62±.50		3.67±.50	
친한 친구	한두 명	3.37±.66	2.76**(.006)	2.07±.29	1.86(0.067)	3.45±.68	2.67**(.008)	3.38±.75	.70(.484)
	세 명 이상	3.85±.74		2.16±.18		3.80±.53		3.49±.65	
부모관심도	상	3.95±.66	11.11***(.000) a>b>c	2.16±.18	1.13(0.325)	3.79±.57	0.68(0.508)	3.58±.56	9.94***(.000) a,b>c
	중	3.47±.76		2.13±.24		3.72±.52		3.34±.76	
	하	3.10±1.13		2.06±.19		3.55±.53		2.50±.99	

* p<.05, ** p<.01, *** p<.001

나타났다

행복점수는 학교생활(t=3.537, p<.001)이 즐거운 경우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관심도(F=9.941, p<.001)가 상인 경우가 중위와 하

인 경우보다 행복이 더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았다[표 3]

표 4.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 = 180)

변수	B	SE	β	t	p	Adj.R ²	F(p)
모형 1 (상수)	2.481	.246		10.075	.000	.083	17.163(<.001)
부모돌봄인식	.264	.064	.297	4.143***	.000		
모형 2 (상수)	1.658	.328		5.059	.000	.142	15.844(<.001)
부모돌봄인식	.235	.062	.265	3.793***	.000		
학교생활	.349	.096	.255	3.652***	.000		
모형 3 (상수)	1.329	.348		3.815	.000	.167	12.985(<.001)
부모돌봄인식	.183	.065	.206	2.843**	.005		
학교생활	.319	.095	.233	3.367***	.001		
부모관심도	.226	.090	.183	2.513*	.013		
모형 (상수)	1.967	.337		5.832	.000	.102	11.192(<.001)
부모돌봄인식	.193	.071	.217	2.725**	.007		
또래관계	.208	.095	.175	2.202*	.029		

* p<.05, ** p<.01, *** p<.001

4.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진단을 위해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상관성을 검정한 결과 2.18로 2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607에서.975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자 VIF는 1.025에서 1.648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1.55에서 3.23으로 2에 가까이 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 확인과 모형의 적합성도 만족하였다(F=17.16, F=15.84, F=12.99, F=11.19, p<.05).

투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선택 하였는데 모형1은 부모돌봄인식을, 모형2에서는 모형1에 학교생활을, 모형3은 모형2에 부모관심도를 넣어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 모형1은 부모돌봄인식을, 모형2에서는 모형1에 학교생활을, 모형3은 모형2에 부모관심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모형1은 통제 변수들이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모형 적합도는 17.1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부모돌봄인식($\beta=.297$, $p<.001$)는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8.3%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학교생활을 투입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15.84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변수로 부모돌봄($\beta=.265$, $p<.001$), 학교생활($\beta=.255$, $p<.0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2의 설명력은 14.2%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5.9% 향상되었다.

모형3은 모형2에 부모관심도를 투입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12.9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부모돌봄($\beta=.297$, $p<.001$), 학교생활($\beta=.255$, $p<.001$), 부모

관심도($\beta=.183$, $p<.05$), 또래관계($\beta=.175$, $p<.05$)가 있으며 부모돌봄이 크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부모관심도가 클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학령기 아동은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설명력은 16.7%로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2.5%, 모형1에 비해 8.4% 향상되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부모돌봄인식 점수는 (Chio, 2015)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13]. 부모돌봄인식의 하위항목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대인돌봄인식을 조사한 (Peak, 2013)의 연구에서도[26] 3.82의 평균을 보이며 적극적 경향이 4.16점으로 가장 높고 동행함이 3.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부모돌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동거가족, 학교생활, 부모관심도가 높을수록 부모돌봄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Chio, 2016)의 연구에서 성별이 부모돌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모돌봄인식 평균이 더 높은 것은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돌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령기 아동의 특성상 부모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돌봄을 기초로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Song, 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방식인 부모의 돌봄은 아동의 사회적 지능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정서지능의 점수는 (Kim and Lee, 2009)의 연구에서 26.0~29.6의 점수 분포보다 낮은 점수이고[35] (Chio, 2012)의 연구에서 평균 2.01~2.55점 분포로 볼 때 비슷한 수준이다[36]. (Lee, 2012)의 연구는 1.28점으로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인 점을 고려한 점수분포라고 하겠다[37]. 이 결과로 보아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인 정서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본 연구결과에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동거가족, 학교생활, 성적이 있는데 동거가족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는 아동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 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정서지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즉 부모돌봄을 바탕으로 부모와 애착이 뚜렷한 경우 청소년기 아동에게 나타나는 자기 효능감이 높았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38]. 성적도 ‘잘하는 편이다’와 ‘보통이다’가 ‘못하는 편이다’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거하여 애착이 클수록,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또래관계 점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교한(S. J. An, J. Y. Lim, and G. H. Chung., 2012)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 평균점수 3.14점으로 일반 가정 아동 평균점수 3.34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39]. 하지만 (Song, 2016)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또래관계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본연구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40].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를 보면 성별, 학교생활, 친한 친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DHD아동의 증상 특성 상 공격성과 충동 통제의 어려움이 또래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탓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보면 남, 여에 따라 또래관계는 다르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아동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사회화와 성숙을 돕게 하는 (S. J. An, J. Y. Lim, and G. H. Chung, 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Shin and Chae, 2011)의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평균점수 6.49, 불안장애 환자의 평균점수 8.29, 대조군의 평균점

수 12.37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34]. 학령기 아동에 대한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Lee and Kim, 2013)[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의적 행복 평균은 3.66, 인지적 행복감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성적수준, 가정의 생활수준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적수준과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아동의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부모의 관심도가 클수록 아동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는 불일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Kang & Kim & Kim & Jeong & Han, 2017)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활동이 행복의 요인이 되며 그 이전에 부모와의 적절할 상호작용과[41] 관심이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Lee & Cho, 2012)[7]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모애착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Jung & Kim, 2014)의[6]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아동이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Choi & Choi & Shin & Cho, 2009)의 연구[41], (Seong & Kim, 2015)[3], (Shin & Kim, 2016)의 [4]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돌봄인식과, 정서지능, 또래관계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은 부모의 정성스런 돌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정서적 지능이 풍부해지고 또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가 좋아져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와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Lee and Kim, 2013)의 연구 결과에서 아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인일수록 행복이 높아지고 또래와 공동활동, 상호 교환적 활동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행복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1].

또한 (Kim, 2007)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아동의 행복은 부모 또는 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수록, 아동의 성격유형이 외향적인수록 행복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2].

따라서 부모돌봄인식이 클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학령기 아동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아동에게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강화와,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과거 아동은 가정내에서 부모에게 전적인 돌봄을 제공받았지만 최근 이혼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돌봄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에 담임교사들에게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담임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의 증가 및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좀 더 전문적인 대인돌봄이 요구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 대인돌봄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를 높여 아동이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보는 연구와, 부모 돌봄과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로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는 있었으나 부모돌봄이 교사 지지를 매개로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3][14].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돌봄인식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Kim, 2016)의 연구에서[42]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행복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이며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관심도와 돌봄이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Yang, 2007)의 연구에서[43]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의 가족생활 행복도를 보면 가족지지와, 또래수용이 유의한 상관을 이루어 또래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의 증대로 부모-자녀간 관

계가 긍정적일 때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가 좋아져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감 및 학교생활 전반에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특성 변화 및 가족구조의 결핍으로 한 부모,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 부모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감이 낮고,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우울, 불안이 높은 수준이며 대인관계에서도 부적응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H. J. Nam, H. S. Yoon, T. Y. Lee, C. Y. Shin and D. H. Lee, 2013)의 연구에서[44] 부모-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 양육태도, 심리사회적 지지가 안정적인 한 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아동의 경우 학교 적응에 차이가 없었다[45]. 즉 이것은 부모 돌봄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관심이 상일 경우 아동이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결과와 같다. 그러므로 아동 돌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모의 돌봄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이고,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를 좋게 만들며, 아동을 행복하게 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을 마련하게 한다. 이것은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내뿜 (Jung & Lee, 2013)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46].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기초로 한 부모돌봄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인돌봄 중재기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겠다.

부모돌봄인식은 대상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돌봄 행위로 구체적으로 10가지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아봐줌, 동참함, 공유함, 적극적 경청, 칭찬함, 동행함, 안위함, 희망 불러넣어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함, 수용함 등의 10가지 기법으로써 돌봄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자녀 즉 아동의 시선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아동의 상태, 외모변화 등을 알아차리고 반응해주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험하고,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잘했다', '수고했다', 표현하고, 힘이 되어주며, 감싸주고, 희망, 생기, 용기를 불

어 넣어주어,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을 기초로 하여 부모돌봄행위 10가지 기법을 적용한 대인돌봄 중재기법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아동의 전체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부모돌봄인식, 또래관계, 정서 지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중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돌봄인식, 또래관계, 학교생활, 부모관심도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를 돌보는 태도 또는 인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를 통한 전문적인 돌봄의 제공을 위한 꾸준한 반복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돌봄인식의 필요성과 전문가에 의한 돌봄 행위를 실천함에 있어 간호학적 의미를 밝히며 그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인돌봄 중재 프로그램의 방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J. S. Lee and E. J. Kim,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2, No.5, pp.433-445, 2013.
- [2] Y.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7.
- [3] D. G. Seong and C. K. Kim,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Children's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With a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6, No.4, pp.129-142, 2015.
- [4] H. Y. Shin and J. H. Kim,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According to the types of Mother & Peer Attachment and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5, No.5, pp.545-558, 2016.
- [5] [http://news.mk.co.kr/newsRead.php?no=320452 &year=2016](http://news.mk.co.kr/newsRead.php?no=320452&year=2016)
- [6] H. S. Jeong and Y. H. Kim, "Determinants of Happiness Perceived by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7, pp.89-118, 2014.
- [7] J. K. Lee and H. C. Cho, "A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40, pp.41-71, 2012.
- [8] E. J. Jo,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The Journal of Forum for Youth Culture*, Vol.37, No.1, pp.103-126, 2014.
- [9] J. L. Daniel and E. W. Lea,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connections

- between Strength-Based Parenting, Happi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eens,” *Journal of Frontiers in Psychology*, Vol.8, No.1707, 2017.
- [10] H. S. Kim, Y. S. Chae, and G. R. Park, “Effects of a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Inferiority, and Peer-relationship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Vol.16, No.1, pp.1-9, 2010.
- [11] Y. M. Jung, S. H. Lee, and Y. O. Jeong,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est in Horticultural Activity o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bility,” *Journal of Korea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7, No.3, pp.39-54, 2014.
- [12] A. Albert, “The Relation Between the Time Mothers and Children Spent Together and the Children’s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hild Youth Care Forum*, Vol.41, pp.493-508, 2012.
- [13] S. Y. Choi, *Influence of parents’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and smartphone use level on school life adaptation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Korea, 2015.
- [14] Y. J. Song, “The Effect of ADHD Symptoms on Peer Relational Skill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ting Role of Parental Caring and Teacher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7, No.1, pp.203-229, 2015.
- [15] M. D. Julia and C. O. James, “Depression, Adult Attachment, and Recollections of Parental Caring During Childhoo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90, No.10, pp.663-669, 2002.
- [16] B. G. Chon and J. R. Oh, “The Influence of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School Maladjustment :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1, No.2, pp.571-589, 2015.
- [17] J. E. Choi, D. G. Moon, and S. B. Moon,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1, pp.99-111, 2013.
- [18] S. H. Moon,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to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39, No.3, pp.401-408, 2009.
- [19] S. M. Nina, “Parental Management of Peer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Social Skill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40, pp.416-427, 2011.
- [20] B. Y. Chae,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Optimism Enhancement Program to Happiness and De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 Korea, 2014.
- [21] B. R. Choi, *Rel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ale and Female Children*,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0.
- [22] H. Y. Lee and G. H. Seo, “The Effect of Improvement EQ Program on EQ and Sociality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52, No.1, pp.153-182, 2013.
- [23] G. Tome, M. M. G. D. Matos, and I. Camacho, “How can Peer Group Influence the Behavior of Adolescents: Explanatory Model,”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Vol.4, No.2, pp.26-35, 2012.

- [24] M. S. Yoo, K. S. Chung, S. H. Park, J. R. Cha, and K. P. Hong,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Happines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3, pp.15-26, 2013.
- [25] S. C. Vania, G. Eloisa, and J. C. Maria, "Emotional intelligence and health students' well-being: A two-wave study with students of medicine, physiotherapy and nursing," *Journal of Nurse Education Today*, Vol.63, pp.35-42, 2018.
- [26] J. W. Paek, *Factors Influencing o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Korea, 2013.
- [27] E. J. Choi and Y. E.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for Vulnerable Adolesc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16, No.3, pp.184-194, 2010.
- [28] S. H. Kim and S. Lee, "Effects of an Interpersonal caring Music Activity Program on loneliness, Self-esteem, and the stress response in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219-228, 2017.
- [29] E. J. Choi and Y. E.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for Vulnerable Adolesc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16, No.3, pp.184-194, 2010.
- [30] S. H. Yoon, *Study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using communication skills by interpersonal caring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31] E. S. Choi and H. J. Bnag,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4, pp.91-110, 2016.
- [32] M. J. Kim, *Impact of Self-Esteem on Peer Relationship in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 Korea, 2010.
- [33] E. A. Kim and J. N. Kim, "The Effects of a Play-Centered Assertiveness Training on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Single Parents Families," *The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8, No.2, pp.134-150, 2011.
- [34] A. Y. Shin and J. H. Cha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patient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11, No.1, pp.41-52, 2011.
- [35] K. S. Kim and S. H. Le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Peer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20, No.1, pp.171-191, 2009.
- [36] Choi Taerin,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Acceptive Attitud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2.
- [37] H. J. Le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Optimism of a Child i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2.
- [38] Z. Rabia and I. Nazia, "Perceived Parental

- Attachment Styles Predicting Self-Efficacy in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Vol.27, No.1, 2017.
- [39] S. J. An, J. Y. Lim, and G. H. Chung,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on Children’s Self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1, pp.15-29, 2012.
- [40] Y. J. Song,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on peer relations of boys with ADHD sysmptoms : Mediation Role of Stigmatiz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Vol.17, No.3, pp.129-151, 2016.
- [41] K. O. Kang, J. H. Kim, J. M. Kim, H. Y. Jeong, and J. W. Han, “Factors Affecting Early School-Age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of Parental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47, No.6, p.854, 2017.
- [42] H. S. Kim,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chool Life Happiness, mediated by 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 Multi-Group Analysis o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55, pp.113-141, 2016.
- [43] S. M. Yang,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2, No.4, pp.559-576, 2007.
- [44] H. J. Nam, H. S. Yoon, T. Y. Lee, C. Y. Shin, and D. H. Lee,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Woman Psychology, Vol.18, No.1, pp.129-168, 2013.
- [45] S. H.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Family Relationship,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759-777, 2014.
- [46] E. S. Jung and J. Y. Le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3, No.9, pp.204-215, 2013.

저 자 소 개

김 수 희(Su hee Kim)

정희원



- 2015년 2월 : 단국대학교 임상 간호학(임상 간호학 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과정)
- 2010년 6월 ~ 현재 : 논산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간호7급)

<관심분야> : 정서지원 프로그램, 음악치료, 스트레스 관리

이 숙(Sook Lee)

정희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정신간호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장상담, 스트레스 관리, 정서지능, 원예치료